

Zoom 업

SPECIAL ISSUE

최근 광학기술 시장동향 및 KOTRA 글로벌사업 세미나

한국광학기기협회 주최, 11월 26일 코트라 세미나실에서 열려

최근 광학산업의 흐름과 기술동향에 대해 짚어보고 정부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해 알아보는 세미나가 한국광학기기협회 주최로 지난 11월 26일 코트라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중소기업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개발 영역에 대해 협회를 주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가 R&D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와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취재/박지연 기자

각 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최근 광학산업의 흐름과 기술동향에 대해 짚어보고 정부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해 알아보는 세미나가 지난 11월 26일 한국광학기기협회 주최로 코트라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전자부품연구원 문현찬 박사의 <3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개발 동향>강연을 시작으로 액츠 문희중 사장으로부터 <최근 정밀광학 부품의 기술 및 시장 동향>,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사업팀 전미호 팀장으로부터 현재 코트라에서 적극 추진 중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십(GP) 구축 사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우태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년 전 불모지와 다름 없던 우리나라 광학산업이 오늘날과 같은 급속한 성장·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광학인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특히 중소기업체들의 힘이 모여서 큰 성과를 낸 것”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 우태주 부회장은 “그러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체들도

더 이상 내수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각 지역으로 판로를 다변화해 질적·양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경영전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신 광학기술의 동향을 알아봄과 동시에 정부가 중소 부품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에서도 향후에도 회원사 지원사업 및 국내 광학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가 R&D사업 및 기타 회원사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최근 광학산업의 기술동향 및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소개

이날 세미나 첫 시간에는 전자부품연구원의 문현찬 박사의 진행으로 <3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개발 동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문현찬 박사는

“HMD 또는 EGD(Eye Glass Display)라고도 하는 안경형 모니터가 I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휴대용 동영상 및 모바일 정보검색, 3D의 시대가 대두됨에 따라 휴대폰이나 PMP의 작은 화면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적합한 개인 휴대용 모니터 장치로서 향후 크게 형성될 모바일 산업의 핵심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다양화된 HMD의 상품화 모델들을 비교 설명하며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광학설계 기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현찬 박사는 “카트너 자료의 의하면 2012년 이후로는 20~30대의 70%가 EGD(HMD) 모니터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향후 모바일 산업의 핵심제품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며 “기술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시장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3D관련 신규사업에 적극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액츠 문희중 사장의 진행으로 <최근 정밀광학부품의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문희중 사장은 현재 국내 광학부품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인 시큐리티 카메라에서부터 HMD/HUD 안경형 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폰 카메라, 프로젝터, Pico-프로젝터, LED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밀광학산업

의 최신 기술 흐름을 짚어보고 향후 시장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사업팀 전미호 팀장의 진행으로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십(GP) 구축 사업>에 관한 소개가 이어졌다.

전미호 팀장은 코트라에서 지난 2008년부터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중소기업들을 전략적 파트너로 연결시켜 주는 GP(글로벌 파트너링, Global Partnering)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매년 10차례 정도 국내외에서 상담회를 열고 글로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들을 1대1로 연결시키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기존 국내 부품제조기업들이 만들어진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데에만 주력했다면 이제는 글로벌기업들의 파트너의 입장에서 제품의 연구·개발단계부터 납품을 전제로 한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러한 파트너링 형태가 확산되어 국내 부품제조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코트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지막 시간에는 한국광학기기협회 이상현 과장의 진행으로 국가 R&D 사업 추진 안내 및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는 중소기업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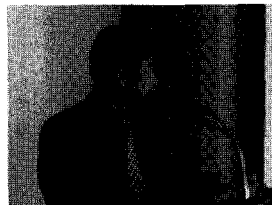
▶ 지난 11월 26일 한국광학기기협회 주최로 코트라 세미나실에서 광학기술 세미나가 열렸다.



▶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우태주 부회장



▶ 코트라의 전미호 팀장이 GP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전자부품연구원의 문현찬 박사



▶ 강연중인 액츠의 문희중 사장



▶ 세미나 강연을 경청중인 참석자들

영역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가 R&D사업 형태로 발굴하기 위함이다. 과거에 국가 R&D사업으로 ▶ 디지털 카메라 및 출력시스템 기술 개발 ▶ 레이저 발전기 및 응용시스템 개발 ▶ 소형 카메라 및 광학시스템 성능평가 방법의 표준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한국광학기기협회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광학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가 R&D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광학기기협회(담당 : 이상현 과장)로 문의하면 된다.

<짚막뉴스>

지식경제부, 해외투자 가이드북 보급·발간

지식경제부는 1월 3일 해외투자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체계적인 해외투자진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투자 가이드북 시리즈(3종)'를 발간·보급한다고 밝혔다.

투자 가이드북은 ①해외진출 종합 가이드(분야별), ②주요국 해외투자 편람(국별), ③해외투자 상담 사례집으로 나누어 발간·보급된다.

해외진출 종합가이드는 해외진출 유형 및 방법, 국내절차(신고절차), 체크리스트, 해외진출 지원서비스, 조세제도, 금융 및 보험제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개정판에는 해외 플랜트건설 수요증가를 고려해 원자력 기술기업 해외진출 및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추가했다. 또한 식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한식당 방문건설링 사업 및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등도 반영했다.

주요국 해외투자 편람은 주요 투자 대상국(코

트라 KBC 소재 73개국)별 투자유치제도 및 환경, 투자동향, 투자 유망업종 등이 포함됐다.

해외투자 상담 사례집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인도 등 주요 진출 7개국의 코트라 해외투자상담센터 및 KBC의 전문가 상담 사례가 소개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대내외적 경쟁 심화 속에서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해외투자 관련 정보나 인력·자금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지경부는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대한상의, 중소기업 중앙회, 중진공, 무역협회 등), 기업 등에게 책자를 보급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는 해외진출 종합 포털 사이트(www.ois.go.kr), 지경부 홈페이지(www.mke.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